

전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비상 태세' 강화

철새 경로와 일치·오염도 6.3배

영산강 이남 강진·장흥 쪽 확산 차단에 주력

전남도가 확산 일로에 있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위해 총력 방역 태세로 전환했다.

전남지역은 올 겨울 들어 지난 11월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주간 7개 시·군에서 매일 1~2건씩 총 16건이 발생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별 발생은 나주 6건, 곡성 1건, 고흥 1건, 장흥 1건, 영암 2건, 무안 3건, 함평 2건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브리핑을 통해 "겨울 철새가 매일 도내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고, 특히 순천만에서 이어지는 영산강과 서해안 일대가 집중 오염돼 철새 이동경로와 AI 발생경로가 일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방역수준은 확산 추세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누적 발생 16건 중 12건이 과거 미발생 농가일 정도로 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실제 올해 AI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가 6.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금주 부지사는 "12월부터 내년 1월은 한파로 인한 소독 여건 악화, 철새 유입 증가로 인한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위험 시기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앞서 20억원에 추가로 10억원을 투입 총 30억원을 긴급 투입해 농장 중심 차단방역 실천력 확보와 오리 밀집도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나주·영암·무안·함평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해 방역대내 산란계, 오리농장에 통제초

소를 설치하고, 소독 차량을 집중 배치해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산강 수계 나주 일대에서 확산 중인 AI가 영산강 이남 지역인 장흥과 강진 쪽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암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아 총력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오리 사육 밀집도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사육제한을 추가로 확대하고, 계열사와 협의해 5일 이상 조기출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실천력 강화를 위해 소독 상황을 3단계로 확인하고 발생 농가 중 기본 방역수칙 미

이행이 확인된 경우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10만수 이상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해서는 드론 소독을 주 1회에서 5회까지 확대 강화했다.

전남도는 감염속 색출을 위해 도내 582개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오는 18일까지 2주간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2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남지역 누적 발생은 가금류 16건, 야생조류 19건이다.

/박종배 기자

文 전 대통령 기르던 풍산개 '곰이' '송강' 광주 안착

정부 반환 이후 '새 보금자리'...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 문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직접 키우다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육사와 함께 잔디밭에 나온 곰이와 송강은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활기찬 모습이였다. 시민들도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 두 풍산개에게 손을 내밀거나 이름을 연호하며 크게 환영했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선물로 보내 온 풍산개다. 같은 해 11월 곰이와 송강 사이에서 자견 '별' 등 6마리를 출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소유이며 대통령기록물인 퇴임 뒤에도 풍산개들을 맡아 길러왔지만, 정부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지난 달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이후 곰이와 송강은 경북대병원수의학과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지내다, 대통령기록관과 광주시 간 협의를 거쳐 우치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분양이 아닌 대어 형식이다.

시 산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오후 경북대병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넘겨 받았다. 국가기록물인 만큼 관리 책임이 뒤따르고, 사육비용 등 모든 적정관리 책임은 광주시가 맡는다.

우치동물원 측은 곰이와 송강을 동물원 내 실내사육장(입원실)에서 기르며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곰이와 송강은 각각 2017년 3월과 11월 태어나 연령은 5~6년생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30대에 해당한다.

곰이는 신장 결석이 있어 특수 사료를 먹고 있고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송강이는 외이염 증상이 있지만 완치 단계다. 두 풍산개의 건강 상태는 연령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사육사들은 전했다.

우치동물원은 곰이와 송강을 위한 적절한 사육공간과 임시 야외 놀이터 등을 마련하고 전담 사육사 2명을 선정했다.



광주에 보금자리 마련한 곰이·송강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오른쪽)'와 '송강'이 사육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대어 형식으로 곰이와 송강을 넘겨받아 사육을 전담한다. /광주시 제공

현재 동물원 내에는 자견 '별'이 도 기르고 있다. 3년 만에 부모·자식견이 만나 함께 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곰이와 송강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분리할 계획이다. 우치공원 측은 "곰이와 송강 모두

건강한 편이다. 곰이는 외과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환경인 만큼 부적응 등에 대비해 특별 관리하겠다"며 "당분간은 시민 관람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풍암호수 수질개선 앞서
 정확 자료 분석·실측 선행"
 호수 매립시 녹조발생 우려도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앞서 호수 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풍암동 주민자치회 공동주최로 '중앙공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개선안에 제시된 목표 수질과 지하수 예상 유입량 설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풍암호 수질개선 전담팀(TF)에서 내놓은 수질 개선안은 ▲호수 평균 수심 4m→1.5m로 낮추는 방안 ▲저수량 44만 7000t→16만 5000t으로 낮추는 방안 ▲매립 지하수 1000t 유입 ▲오염원 제거 위한 빗물 배수 시설 설치 등이다.

박 교수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총인 등 영양 염류가 0.02ppm을 유지해야 하는데 수질 개선 목표를 0.05ppm(3등급)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지하수 예상 유입량 측정을 한 위치와 실제 관측점을 굴착할 위치가 다르다"며 "풍암호수 바닥에 누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흐름이 차단돼 하루 1000t씩 지하수를 유입 할 수 없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암호수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지에 대한 '물수지 분석' 없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호수 퇴적층 조사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바닥면에 평균 1m 이상의 퇴적층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수시설 설치에 앞서 퇴적층 분석과 저서 생물 환경 변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수 매립 시 '녹조 발생 가속화'를 우려하며 원형 보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형안 기자

광주 시반도체 조성 광복 행보 2면

정부, 주52시간 개편 시동 3면

내년 집값 떨어진다 4면

한빛4호기를 더욱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공극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발견된 공극은 완벽하게 보수하였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 빛 원 자 력 본 부